

###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 1/06 월

**요 1:1, 51**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 90:1-2**

1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2 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출 3:14**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여라.”

**요 8:58, 28**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하시니,  
2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 1/07 화

**요 1:3**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롬 1:20**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 19:1-3**

1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다네.  
2 낮은 낮에게 말을 쏟아 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네.  
3 말이 없고 이야기가 없으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으나

**히 11:3**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골 1:15-17**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 1/08 수

**요 1:14, 16**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마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벧후 1:17-18**

17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18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 40:5**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한 까닭이라.”

**갈 4:4**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니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 4:5**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 45:2**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1/09 목**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히 9:26, 28**

**26** 만일 그렇게 하셔야 했다면, 그분은 창세 이후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어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들이 종결될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8**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리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고전 15:3** 내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나도 전해 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히 10:5, 7, 9-10**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

**9**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1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골 1: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1/10 금**

**요 1:32**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 1:42**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빌 4:4, 6-7**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11 토**

**창 28:12**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요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1/12 주일

## 찬송: 187 (英) 주 사랑 내게 (中:152)

## 요 1:1, 3-5, 14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3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 벧전 2:4-7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6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1 주 사랑은 우리에게 그 풍성 분량 말해 주의 부-요함 무한-함 영 안에서 누리- 돼.

2 태초에 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육체 되-어서 사시-며 하나님 말해 냈-네.

3 하나님 장막이신 주 그 영광 나타내네 참 성전-이신 주 안-에 하나님 거하시-네.

6 모두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모두 안-에서 모두-인 하나님-사람일-세.

14 주 우릴 구속해주신 흠 없으신 어린양 우리에-게 생명 주-셔 거듭나게 하시-네.

24 주 우리 신랑 되시니 우리는 주의 신부 영 안에- 주와 한 몸- 돼 풍성한 사랑 누-려.

25 오 야곱이 본 사다리 하늘을 여시는 주 우린 하-나님 성전- 돼 이 땅과 하늘 잇-네.

26 오 주는 우릴 채우는 위대한 "나는...이다" 모든 것-이신 주 누-려 하나님 목적 이-뤄.